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5강 로크와 루소의 사상

제15강 1교시

◆ 로크의 정치사상

모더니티를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정치**의 발견’이다.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인 것은 인간 사회의 어느 때에나 있었지만 여기서의 정치**는** 사회society가 성립한 이후의 정치를 말한다.

사회⇒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개개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어나감.

→전체가 이미 주어지고 그 전체 중의 한 자리place, 위치position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원자atom들로 태어나서 관계를 형성해간다.

마키아벨리나 홉스, 오규우 소라이 등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전개⇒ 계몽사상

로크의 시민정부론→본격적인 근대 정치철학을 전개함. 프랑스의 philosophes(계몽사상가들). 루소→독일관념론⇒ 고전적인 근대철학들⇒ 19세기에 본격적인 현대사상의 원류들이 등장하게 됨.

▶ 참고자료

로크 [Locke, John, 1632.8.29~1704.10.28]



영국의 철학자·정치사상가.

국적 영국

활동분야 철학

출생지 영국 링턴

주요저서 《인간오성론》(1690)

로크도 홉스와 마찬가지로 자연상태natural state에서 출발한다. 자연상태는 역사상의 실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기 위한 이론적 장치이다.

홉스에게서 자연상태는 전쟁상태(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이 전쟁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이야기함

로크에게 있어 자연상태는 전쟁상태가 아니고 전쟁상태와 시민사회의 중간에 위치한다.

→자연상태가 전쟁상태로 갈 수도 있고 시민사회로 갈 수도 있음

⇒ 로크가 보기에 인간은 아주 선하지도 않지만 아주 악하지도 않은 존재이다.

로크의 자연상태는 유토피아 같은 것은 아니다. 로크는 인간이란 악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불안정하거나 불완전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인간사회는 무조건적인 전쟁상태는 아니지만 언제 전쟁상태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생명, 자유, 재산이라고 하는 **천부인권(자연권natural right)**이 주어져 있다. 그런데 만약 자연상태를 무조건 그대로 유지하면 전쟁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계약contract**과 **양도alienation**가 필요하다.

홉스는 계약과 양도를 통해서 절대군주(리바이어던)사상으로 가지만 로크는 정부government를 도입한다. 하지만 로크의 정부론도 입헌군주론이라는 시대적 한계가 있다.

정부는 통치를 위임받아서 다스려야한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한 측면에 권력이 독점될 때는 문제가 생긴다.→**권력분립론을 주장.**

⇒ 로크는 입법가, 사법가, 행정가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삼권분립**

→삼권분립은 후에 몽테스키외에 의해서 정교화된다.

철학사입문코스Ⅳ

제15장 2교시

◆ 루소의 정치사상 1

로크는 도덕을 정치 위에 둔다. 정부의 권위나 권한은 시민들과 맺은 계약이 전제하는 도덕성을 위배하면 안 된다. 만약 정부가 도덕성을 상실한다면 계약위반이 된다.

⇒ 로크는 정치를 자본주의적인 상업적 사고로 본다.

19세기가 되면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대립하는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중요한 차이는 **자유주의는 정치도 경제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는 점**이다.

→사회주의는 정치를 경제논리에 맡길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오히려 정치는 경제가 배태한 모순들을 극복하는 것으로 본다.

로크는 자유주의의 시조로 불린다.

→오늘날 자유주의라 불리는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로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계몽사상이 전면적으로 전개된 곳은 프랑스였다. 계몽사상의 전반적 분위기는 합리주의와 개인주의였다. 디드로, 달랑베르,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은 백과전서의 편찬을 통해서 기존의 온갖 미신들, 폐단들을 몰아내고자 했고 이것이 바로 구체제ancien regime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계몽사상가들은 대부분 전문적이고 직업적인 철학자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운동가들이었다.

계몽사상가들은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들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욕망을 철저히 긍정했다. 그래서 이들은 합리주의자들인 동시에 모랄리스트들이었다.

→당시의 moral이라는 말은 개인의 섬세한 내면을 의미했다.

⇒ 서양근대 계몽사상을 일방적으로 이성주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정확한 면이 있다.

프랑스계몽사상을 이끌어간 중요한 테마는 **사회주의socialism**였다.

→원자화된 개인들이라는 근대의 개념을 전제한다.

생시몽, 푸리에, 영국의 오웬 같은 사람들은 근대사회주의자들은 근대적 개인주의의 형태를 넘어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를 구상하고자 했다.

⇒ 이러한 사회주의 전통은 오늘날 프랑스 사회의 기본적인 전통이 되어 있다.

▶ 참고자료

루소 [Rousseau, Jean-Jacques, 1712.6.28~1778.7.2]



국적 프랑스

활동분야 사상가, 소설

출생지 스위스 제네바

주요저서 《신 엘로이즈》(1761) 《고백록》 《에밀》(1762)

평생 동안 많은 저서를 통하여 지극히 광범위한 문제를 논하였으나, 그의 일관된 주장은 ‘인간 회복’으로, 인간의 본성을 자연상태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선량하였으나, 자신의 손으로 만든 사회제도나 문화에 의하여 부자유스럽고 불행한 상태에 빠졌으며, 사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참된 인간의 모습(자연)을 발견하여 인간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손상시키고 있는 당대의 사회나 문화에 대하여 통렬한 비판을 가하였으며, 그 문제의 제기 방법도 매우 현대적이었다. 한편, 그의 작품 속에 나오는 자아의 고백이나 아름다운 자연묘사는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문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루소는 『학문과 예술에 관한 담론 Discours sur les sciences et les arts(1749)』에서 학문과 예술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 참고자료

신구문학논쟁 [新舊文學論爭, Querelle des Anciens et des Modernes]

‘고대파·근대파논쟁’이라고도 한다. 16세기 중엽 이후 고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지만, R.데카르트 이후에는 여기에 의심을 품는 자가 많았고, 17세기 말에 이르러 고대인의 우월성에 대한 반박이 C.페로에 의해 행하여졌다. 즉, 그는 시작품(詩作品) 《루이 대왕의 세기(世紀)》(1687)에서 당대의 문학은 고대 문학에 비해 손색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J.라퐁텐이 《위에에게 보낸 서간시》에서 반론을 펴고, 또 부알로가 함께 근대파에 대항하였기 때문에 대논전이 벌어졌다.

근대파에는 B.퐁트넬 등이 가담하고, 고대파에는 J.라신, 라퐁텐, 라 브뤼에르, 페늘롱 등이 합세했다. 이 논쟁의 결과, 고대의 권위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고대문학의 전통을 대신하여 진보의 관념 및 비평의 독립과 상대성의 관념이 도입되었다.

『인간불평등기원론 Discours sur l' origine de l' inegalite parmi les hommes(1755)』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문명이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 이러한 루소의 생각은 계몽사상가들의 격렬한 경멸의 대상이 된다.

루소가 말하는 자연상태는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상태에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 하나의 이론적 모델일 뿐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계약론Du contra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1762)』과 『에밀 Emile(1762)』

만일 문명이나 국가가 인간을 망쳤다면 문명과 사회를 벗어나자는 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잘못된 정치, 사회를 고쳐야할 것인가를 논한 것이 『사회계약론』이다. 인간을 어떻게 교육하여야 하는가를 다룬 책이 『에밀』이다.

『고백록Les Confessions』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톨스토이의 고백록과 함께 서양의 3대 고백론으로 불림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Les Reveries du promeneur solitaire』→ 루소의 말년에 쓰여짐. 자연을 예찬하는 내용.